650만달러 중 일부 국내 역송금 광주지검, 뒷돈거래 등 자금 추적

시의회, 갬코 실패 원인·책임 집중 추궁

광주시의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갬코)과 관련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미국 측 법인에 전달한 650만 달러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이 국내 업체 및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으며 자금 사용과정에서 부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도 관계자들을 불러 확인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갬코와 관련 광주시 자문위원 장모씨, 박모씨 등 수 명을 불러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차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가능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65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받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론적으로 미국 측 법인인 K2AM이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일부 자금이 미국 측 법인에서 자문위원 장씨 등에게 흘러들어가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합작투자사업 과정에서 뒷돈 거래가 밝혀질 경우 이번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광주시 담당공무원 등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테스트 이후 귀국한 김병술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대표 역시 이번 주내로 불러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주시 측 투자법인인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은 당시 지난해 8월 예정됐다가 취소된 '알파치노 초청 행사'를 위해 25만 달러를 미국 측 공동 사업자인 K2AM에, 25만 달러를 자문위원 1명이 운영하는 기획 대행사에 송금한 사실도 밝혀내고 자금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9일 강운태 광주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법인명 갬코) 실패에 대한 원인과 책임 등을 추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희곤·정현애·문상필 의원 등 행정사무조사특위 소속 의원 3명이 나서 강 시장의 책임 소재를 강하게 추궁하고, 920만 달러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기술테스트가 분명히 실패했다. 환수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에서 법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조사특위위원장인 문상필 의원이 강 시장에게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을 언급하자, 강 시장은 "조사특위에서 법적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하게 응수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착공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착공식이 19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렸다. 착공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시공사인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김종식 서구청장, 조합 관계자, 입주예정자 등이 참석했으며 축하음악회가 함께 진행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치, 한국의 저렴한 건강보험"

美 워싱턴 포스트, 만드는 법·효능 상세 소개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 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만드는 법과 그 효능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 팀 카먼 기자가 최근 버지니아주(州) 센터빌의 불런(Bull Run) 공원에서 열린 코러스 페스티벌(KORUS Festival)의 부대 행사인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에 다녀와서 쓴 것이다. 기사 제목도 '김치, 한국의 저렴한 건강보험'이다.

취재는 김성훈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위원장(전 농림부 장관)과 만남부터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이 채소 발효 식품이 재생 피부 관리 상품으로 '세포라'(프랑스를 대표하는 화장품 전문 매장)에서도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려 애썼다.

그는 다짜고짜 기자에게 "난 일흔세 살이다. 주름살이 있느냐"고 물었다. 위원장의 동그랗고 친근하며 안경 낀 얼굴을 보니 주름살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자는 털어놨다. 눈가에 잔주름도 없었고 모자를 눌러 썼기 때문에(김 위원장은 머리숱은 많지 않다) 절반밖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마에 깊은 주름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직설적으로 김치를 '노화 방지'(anti-aging) 식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처에 있던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세 여성을 가리켰다. 김치 명인(kimchi masters)이라고 했다. 그들의 피부 또한 흠 잡을 데 없이 부드러워 보였다. 김 위원장은 그 사람들 나이를 묻지 말라고 경고했다.

10회째를 맞는 코러스 축제에서 수백 종류가 있는 김치를 널리 알리는 게 김 위원장의 목적이라고 기자는 기사에서 소개했다.

/연합뉴스

F1조직위, 대회지원법 개정안 발의

F1대회조직위원회는 19일 "대회 프로모터 지위를 조직위로 일원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와 F1매니지먼트(FOM)간 협상에 따라 올해부터는 TV 중계권료와 원천세를 내지않는 등 비용 230억원 가량을 줄였고, 경기장 광고 등을 수익사업이 할 수 있게 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라 대회운영기업(KAVO)과 F1조직위로 이원화됐던 대회 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로 일원화하고, 수익사업과 안전대책 업무 등을 F1조직위가 맡게된다. 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 조항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 등도 신설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전남 농식품 수출 올들어 급증

광주 10.6%·전남 20.6% ↑

올 들어 8월말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농식품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농식품 수출실적이 올 8월 말까지 2억91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4900만 달러보다 17%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 광주·전남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실적(52억달러)의 5.8%를 차지했다.

광주는 1억100만 달러로 지난해 9100만 달러보다 10.6%, 전남은 1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1억5800만 달러보다 20.6% 각각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농산물이 1억5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7%, 수산물이 1억1200만 달러로 21.2%, 임산물이 1800만 달러로 14.2% 각각 증가했다. 반면 축산물은 500만 달러로 1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주류(酒類) 8400만 달러 ▲전복 2900만 달러 ▲미역 1900만 달러 ▲김 2100만 달러 ▲톳 1100만 달러 ▲유자차류 1000만 달러 ▲파프리카 1000만 달러 등이다.

주류의 경우 맥주가 일본과 홍콩 등지에 8100만 달러(96.4%) 어치나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창현 aT 광주전남지사장은 "세계 경제의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수출 증가세는 견고한 상태"라며 "수시로 수출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을 자세히 점검해 올해 농식품 분야의 전국 1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도, 나로호 발사 연계 관광코스 개발

전남도는 10월 말로 예정된 제3차 나로호 발사에 맞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일 고흥군청서 시·군 관광부서장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로호 관람객이 1박 이상 도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고흥과 인접 시·군의 주요 숙박 및 관광지 연계구간 개발하고, 10월 중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축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나로호 관광 마케팅 활동 관광지 정비 방안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나로호 성공 발사를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무원 보수 2.8% 인상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8%로 결정돼 3년 연속 오른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에겐 월 20만 원의 이전수당이 지급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를 평균 2.8%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된다.

공무원 보수는 2007년 2.5%, 2008년 2.5%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동결됐다.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2011년 5.1%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린 데 이어 지난해도 3.5% 올렸다. /연합뉴스

알 림

어려움을 함께 합시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회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으로 실의에 빠진 재해민을 돕기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성금 모금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 지역의 피해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 덴빈과 산바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금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오니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12년 8월 30일~2012년 10월 31일
◇ 모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054990-72-003752), 농협(106906-64-003747)
신한은행(5620-28-88597633), 우리은행(001-098482-18-953)
하나은행(116-921005-14337)
◇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인터넷기부 : www.relief.or.kr
◇ ARS기부 : 060-701-1004(1통화당 2000원)
◇ 문자기부 : #0095(1건당 2000원)
◇ 문의 : 1544-9595

한국신문협회·光州日報社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다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경매 일반투자

※ 저희 한국공인중개사는 광주전역 및 나주, 담양, 화순, 장성 외 전남 전지역에 방대한 물건중 그중 투자수익율이 보장된 확실한 검증된 물건을 추천 중개 및 경매 참여하여 드리는 광주권 부동산 권리분석 전문 대표 부동산 입니다.
※ 광주, 전남 전지역 부동산 매물 접수합니다.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납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광주,화순,담양,나주,장성,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옆)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삼성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더블유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 입니다.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 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